



二第三의 塔身은 없다. 現在 남은 部材도 基壇 周邊에 埋沒된 것이 많을 듯 하나 一部는 담 밑에 깔려 있어서 外見만으로는 全貌를 把握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大綱의 構造를 보면 二重 基壇上의 三層 石塔으로 下 基壇面石에는 十二支像을 上 基壇面石에는 八部像이 陽刻되었다. 十二支像은 慶州 甘山寺址에서 慶州 博物館에 移置한 基壇石의 十二支像

과 恰似한 形式으로 躍動하는 姿勢를 보이고 八部像은 허리를 꼬고 있는 溫柔潤達한 姿勢가 十二支像과 相通되며 彫刻手法도 매우 優秀하다. 上甲石 上面에는 角弧의 물덩이 있어 初層塔身을 받게 되었고 屋蓋石은 四段의 받침이 있고 추너는 直線에 轉角이 들리고 있다. 屋蓋石도 破損이甚하여 轉角이 남은 것이 一, 二에 지나지 않을 程度이다. 相輪은 一石으로 된 露盤 仰花가 있을 뿐이며 三層 屋蓋石 上面에 徑 九cm 深 一〇.五cm의 擦柱孔이 있다. 破損이甚하여 哀惜하나 原來는 優秀한 彫刻과 아울러 美塔이 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兩 遺物은 原位에서 移動된 것 같지는 않으며 彫刻手法도 優秀하여 그 製作은 新羅下代로 推定되었다.

竹嶺 白龍寺의 石佛坐像

— 新羅五岳調查記 其八 —

鄭 永 鎬

이 佛像은 六·二五前까지 竹嶺頂上의 白龍寺에 奉安되었던 石佛로 動亂時 寺刹이 全燒廢寺跡에 現位置로 移安한 것이다. 中央線의 喜方寺驛前小峰중턱에 近年에 새로 지은 白龍寺(竹嶺頂上의 舊白龍寺를 옮겼다)고 함) 龍華殿內에 主尊佛로 奉安하고 있는데 한편 여기서 佛堂은 洞窟을 利用한 建物임과(넓이 約八坪) 또 前庭에 八角竿石一片(註)이 있는 것이 注目된다 할 것이다.

結跏趺座한 石佛의 螺髮 頭頂에는 肉髻가 낮으며 兩眉間에 白毫孔이 있고(現在는 水晶으로 白毫를 新造한) 목에는 三道가 둘러졌다. 兩耳는 짧은 편이나 鼻部口唇等 相好各部가 整齊되고 양볼이 厚肉하여 威嚴이 있어 보인다. 通肩法衣는 兩腕을 걸쳐 앞으로 퍼졌고 胸前에는 裙衣帶가 보이며 手印은 降魔印을 結하였다. 光背는 寶珠形으로서 頭光은 圓座周邊에 八瓣에 單葉蓮華紋이 彫刻되었고 그 周緣에서 大彫二線으로 身光을 表現하고 있는 데 그 間地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化佛은 頂上에 一座 中間 左右에 一座씩 都合 三軀를 配置하였는바 三軀 모두가 같은 樣式手法으로 서 蓮莖이 있는 仰蓮座上에 結跏趺座



하고 降魔印을 結하였으며 圓形頭光을 陽刻하였다. 間地에는 忍多紋이 彫飾되고 光背周緣에는 火焰紋이 있다.

臺座는 上臺寬으로 中·下臺는 缺失되어 現在 『시멘트』로 伏蓮下臺를 新造하였다. 上臺下部는 一段의 낮은 角形받침이 있고 仰蓮은 單葉重瓣인데 瓣內에는 彫飾이 있다. 이 佛像은 本來 石造이나 現在는 光背와 上臺까지 改金하기 爲하여 韓紙를 받았으며 燦爛한 金色을 漆하고 相好各部를 彩色하였기 때문에 原形을 많이 그릇치고 있어 甚히 遺憾스럽다. 實測值(cm)는 ……坐像高 七八 肩幅 三八 光背高 一一三 膝幅 六一 頭高 三一 脛高 一四 胸幅 二二 光背厚 一〇 光背廣幅 八九 頭光圓座外徑 一六 光背下幅 五八 內徑 一〇·五 化佛全高 二二 上臺寬 六二 化佛全幅 一五 上臺高 二二

이 石佛의 原位置인 竹嶺頂上도 踏查하였으나 廢墟된지 十餘年이고 또 現在는 이 곳 一帶가 開墾地로 工事が 進行되고 있으므로 別다른 遺蹟을 調査할 수는 없다. 끝으로 이번 調査에서 雪中酷暑에 實測과 調査記錄에 많은 手苦를 한 同人 文甲洙 金和英 兩氏께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註) 龍華殿에 올라가는 入口層階에 放置되어 있는 現高 二六cm 徑 三三cm 一邊長 一三cm의 八角竿柱인데 石燈竿片인지는 알 수 없다. 寺刹側의 말에 依하면 本時부터 이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곳도 過去에 庵子나 小佛宇였음이 짐작된다.

資 料

錦山邑 石塔 二基

李 殷 昌

忠清南道 錦山郡 錦山邑에 石塔 二基가 現存하고 있다. 其一은 中島里 三層石塔이고 其二는 衙仁里石塔이다.

第八卷 第三號 通卷八十號

1, 中島里 三層石塔

錦山邑 東北쪽 丘陵南麓 塔仙洞 民家들이 있는 곳에 三層石塔 一基가 있는바 附近은 寺址로 推測되었다. 一七〇cm 四至에 一五cm 厚의 一枚板石으로 된 臺石위에 三層塔身이 重積되었다. 初層屋身은 柱形表示가 없이 一石으로 된 方石인데 下部 兩側面에 屋身과 同인 樣은 突出部가 있고 二, 三層의 「屋身은 各各 一石으로 四隅柱가 刻出되었으며 屋蓋石은 各層 三段級의 「蓋石받침」이 造出되고 若干의 反轉이 보이는 平凡한 모습이다. 그리고 相輪은 없어지고 擦竿孔이 있을 뿐이다. (總高 二五〇cm)

2, 衙仁里石塔

錦山邑 西北쪽 小丘陵이 東南을 向하여 기울어진 용머리 部落 밭가운데에 瓦片이 散在한 寺址가 있고 이 곳에 石塔 一基가 있는바 倒壞된 것을 再建立한 것이다. 下成基壇의 甲石과 中石 等의 石片을 쌓아 놓은 위에 上成基壇의 甲石을 놓아 塔身을 받게 하였으니 이 塔은 元來 重基壇인가 한다. 初層屋身은 四隅柱가 刻出되고 正前面에는 伏蓮座에 結跏趺座한 如來像을 彫刻하였으며 二層屋身은 缺失되고 三層屋身은 屋蓋石에 붙어 있다. 屋蓋石은 一, 二層柱과 또 最上層것이 남아 있는바 「屋蓋石받침」이 四段級, 三段級, 二段級으로 減縮傾向을 보이고 各層 四隅轉角에서 笠形反轉을 하였다. 相輪部는 없어져 未詳하고 元來 五層石塔으로 推測된다. 特히 上下基壇의 甲石에 勾配表示와 四隅降線이 두드러지게 彫刻된點 初層屋身正面에 如來座像이 配置된點은 注目되는 바이며 既往에는 精巧한 石塔이었던 모양이다. 年代는 前者와 같이 麗代의 所建으로 推定된다. (現在高 二五〇cm)

佛國寺 紫霞門上樑文

孟 仁 在

○ 乾隆四十六年辛丑二月 始役五月初四日辰時上樑山中大德秩